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제30권 20호(다해) 2010 · 4 · 11

[묵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토마스
(1450년 경, 채색 목판화, 워싱턴 국립 미술관, 미국)

토마스에게 보여주셨던
두 손과 옆구리를 저희에게도…….

그러나
'토마스와 같이'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건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할 일은
이성을 움직여
이리저리 따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 침 미 사 (레지오) 저 녁 미 사	오전 오후	9:00 7:30
금 요 일	아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오후	6:00 5: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9:00 1:00 9:00 9:00 1:00 2:30 1:00 2: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박동욱 요셉
	(생)윤자열 마리아, 조지 가보라, 정해홍 요셉, 김종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케네스 안드레아 해밀튼, 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이영자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생)권오상 바오로 & 순길 체칠리아 가정, 안성진 자수아, 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김정웅 요한 가정, 박동수 베드로 & 정애 소화테레사, 김문선 비리암, 박완철 다니엘, 본당레지오 단원들, 토런스 남 3반 가정들, 구마리아네 수녀, 문밥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5,12-16

화답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전례성가 70, 부활 제2주일>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아하론의 집안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일컬으라 하느님 경외하는 자들아.

영원하신 그 사랑.◎

○나를 밀고 폐밀고 쓰러뜨리려 했어도, 주님은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은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이 나를 구하셨도다. 의인들 장막안에 승리의
저 고함소리, 주님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주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우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다.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1,9-11, 12-13.
17-19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 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John) 20,19-31

영성제송 네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2	169
봉헌	269	255
성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287,302
파견	170	166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
게 되면서 또한 자기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도 자라
나게 된다. 이러한 성찰은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일상의 체험
과, 삶을 공격하는 위협들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지혜 문학 안
에서 특히 발달했다. 삶의 모순에 직면한 신앙은 거기에 응답
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

신앙에 도전을 제기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도 고통에 관한 문제이다. 욕기를 묵상하면서 어찌 인간의 보
편적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통 짓눌리
는 죄없는 사람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고달픈 자에게 빛을 주시고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 없어 보물을 찾듯
파헤치다가……." (3,20-21) 그러나 어둠이 깊을 때조차도 신
앙은 "신비"에 대한 신뢰와 경배에 찬 고백을 가리킨다. "알았
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
엇이든지 이루십니다."

계시는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주께서 심어주신 불멸의 생명
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계속하여 더 분명히 파악되도록 서서
히 허락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
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은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전도 3,11) 전체
성과 충만성에 대한 첫 이해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
함으로써 받는 그분의 자유로운 선물에 의해서, 사랑 안에서,
드러나고 완전에 이르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 생명의 불확실성 안에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의미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32). 계약의 백성들의 체험은 나자렛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체험 안에서 새롭게 된다.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시는"(지혜 11,26 참조) 하느님께서 위협에 빠진 이스
라엘을 안심시켜 주셨듯이,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위협과
장애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들 역시 좋은 것
이며, 성부의 사랑이 그 생명에 의미와 가치를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신다.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
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
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루가 7,22) 예수께서는 이
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으로써(35,5-6; 61,1) 당신의 사명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이 어떤 면에
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기쁜 소식"을 그분
에게서 듣게 되며, 자신들의 생명 역시 성부의 손안에서 조심스
럽게 보호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마태
6,25-34 참조)

(◆계속)

거짓 평화와 참 평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예수님과 한때 어울렸던 자신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뽀뽀이 흩어져 도망가지 않고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참 평화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분이셨고, 그렇다고 떠나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평화'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창으로 찢은 상처, 못 박은 상처가 있습니다. 피고름이 흐르고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건넨 평화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찢리며 죽음으로써 성취한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로마와 야합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겠다는 평화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요한 11,50) 사실은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한 것뿐임에도 그들은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웁니다. 거짓 평화는 그렇게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무능보다는 차라리 불의와 부패가 낫다'고, 거짓 평화의 빵부스러기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비루하게 만들면서 우리 국민이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탐욕과 불의는 숨긴 채) 금수강산 이 땅을 지키고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라며 산하를 파헤치면서 보잘 것 없는 몇몇 사람쯤 죽음(희생)에 이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태연히 훈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를 '정의와 사랑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피고름과 악취 나는 상처야말로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의 절정, 곧 참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도자들의 불의와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냈기에 정의의 절정이며, 당신이 벼으로 삼았던 그 많은 하찮은 이웃을 죽음의 순간까지 배반하지 않았기에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평화를 이제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며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정의의 사도, 사랑의 사도, 참 평화의 사도로 초대하고 파견하십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채승희 에스터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천남숙 리디아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원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하느님의 자비주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 미사 중에서>

- ◆ 제1회 부활맞이 천선 탁구대회 폐막...토런스 서구역팀과 대진·자모회팀이 구역/단체전에서 각각 우승했습니다. 지난 두달반(11주)에 걸쳐 진행된 본당 첫 천선 탁구대회를 성원해주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11일) 낮미사 중에 시상이 있습니다.
- 단체 : 1등 대진/자모회, 2등 양업/성모회, 3등 사목회장단
- 구역 : 1등 토런스 서, 2등 토런스 북, 3등 P.V.
- 구역우승팀 vs 단체우승팀에서는 토런스 서구역이 5:0으로 이겨 명실공히 최종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부활 전례 평가회

- 일시 : 오늘 주일(11일) 오후 4시
- 장소 : 강당

◆ 아이티 지진피해자 돕기 모금 중고등부 천선 체육대회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낮12시30분, 본당 잔디구장
- 행사 : Frisbee Football & 복음나누기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21-4755

◆ 백삼위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4월16일(금) 오후 7시, 강당
- 남가주 한인M.E. 제65차 첫주말 본당에서 4쌍 참가
♡박상준 다미아노 & 정현숙 세레나 ♡김용 스테파노 & 박문주 엘리사벳 ♡조윤영 아오스딩 & 조희숙 안젤라
♡금영도 베드로 & 김유미 크리스시아

- 문의 : 김유스티노 & 희연 루치아 본당 대표부부 ☎(310)347-1665

◆ 초상(영정)사진 무료 촬영해드립니다.

- 일시 : 4월18일(주일) 낮12시30분~오후 2시, 강당
- 대상 : 만 60세 이상 본당 어르신 및 주변 친지들
- 문의 : 이진행 힐라리오 홍보부장 ☎(424)222-9091

◆ 부활 세례자 첫 고해

- 일시 : 4월29일(목) 오후 8시
- 대부분님들은 대자녀들이 고해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안나/요셉회 봄철 온천 관광

- 일시·장소 : 5월11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6명 정원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샌들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 회장 ☎(310)518-1736
김금자 테레사 총무 ☎(310)539-9526

◆ 사순절 희생애공 봉헌

- 희생과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은 사순절 희생봉투를 봉헌 하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성목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총 \$8,229 봉헌).
- 이 애공봉투는 LA 대교구의 Together in Mission'에 보내질 것입니다. 아직 봉헌하지 않은 분들은 주일미사 중에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비를 보내오고 계시는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제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신자분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11일(주일) : 토런스 남2반(콩나물밥 \$3)
- 4월18일(주일) : P.V. 2반(갈비우거지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기정	김병조	김병철	김선제	김세련
	김 옥	김종렬	김종문	김준호	남명자	민기남
	민찬기	박음진	방정복	서성용	성지용	송기철
	송재훈	송준규	엄정자	엄혜은	유정복	이귀분
	이근모	이상석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인두	이효세	장영우	장영진	정상문	정해홍
	조소영	조윤영	주영석	지경수	차병용	최기남
	최미열	최상만	최의수	최재은	하정화	홍안나
	향학수	박제이콥	영희가보라	합계 : \$4,105		
	미사헌금 : \$5,084.50					
2차헌금 : \$638						

성전헌금	강순복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 옥	김종문
	김준호	남명자	민기남	민찬기	방정복	서성용
	성지용	엄정자	엄혜은	유정복	이귀분	이근모
	이상석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효세	장영우
	정상문	정해홍	지경수	차병용	최기남	최미열
	최상만	최의수	최재은	하정화	홍안나	박제이콥
	영희가보라					
	합계 : \$2,415					
	감사헌금 : 최순효 예루살렘 등 성지보호헌금(성금요일) : \$1,167					

공지사항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75(4월25일까지), \$185(5월30일까지), \$195(마감이후) *마감: 5월30일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주일학교 *문의: 장아네스 교장 ☎(310)780-0369
- ◆ **주일학교 전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전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전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 (25511 Eshelman Av. Lomita)
 - 전진성사자와 대부모는 위 3일일정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남가주 소식

- ◆ **남가주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 각 한인성당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단합을 위한 친선체육대회.
- 일시 : 4월18일(주일) 오후 1시~7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 문의 : 최인용 안드레아 백삼위청년회장 ☎(310)386-0336
- ◆ **사우스베이지역 교회대항 축구대회**
- 일시 : 4월17일(토)
 - 대상 :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축구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임면조 바오로 ☎(310)404-5991
- ◆ **제9회 남가주 M.E.친선골프대회**
- 일시 : 5월18일(화) 오후 1시 티오프(등록 낮12시)
 - 장소 : Moorpark Country Club ☎(803)532-2834
11800 Championship Dr. Moorpark, CA 93021
 - 회비 : \$100(중식 및 석식제공)
 - 시상 :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상, 부부상 등 다양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213) 272-3598
- ◆ **'Census 2010'(미국인구조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 2010년 3월부터 각 가구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배달된 인구조사 설문지에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는 국가 정책결정(코리언 커뮤니티 포함)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 * 문의 : 한인 홍보관 주정배(제니 주) ☎(213)923-0709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30분,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4월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지정완 안젤라 972-8292 4/10(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찬구 요한 782-7437 4/10(토) 오후 7시 성당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4/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이병찬 543-8084 4/9(금) 오후 7시30분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야고보&새실리아 619-7763 4/10(토) 오후 6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김미성 비리암 798-6540 4/13(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엄영숙 마리아 373-5662 4/16(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양희숙 마리아 325-6982 4/14(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4/9(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4/17(토) 오후 7시
	3	대진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4/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재은 베드로 997-9006 4/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병학 안드레아 544-4807 4/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난숙 마리아 938-4529 4/16(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유혜영 클라라 377-2806 4/13(화) 오전 10시30분

부활 축제 달군 백삼위 탁구공의 열기

손바닥 위의 하얗고 동그란 무엇?

천주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신자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가 '성체'를 뜻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성탄 이후 부활절까지 성당을 열심히 다닌 백삼위 성당 교우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생

각나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두달 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주일미사 후 친교시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탁구공이죠. 신부님과 여러 사목위원들이 성당 교우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탁구대회를 열었으니 이를하여 '제1회 부활맞이 친선 탁구대회'입니다. 구역별, 단체별로 팀을 나누고 단식, 복식에 혼합복식까지 수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게 된 이 대회는 그동안 성당에서 열렸던 그 어떤 행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겼던 듯 합니다.

탁구라는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달리 그리 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시간, 공간적으로 얽매이는 것도 아니어서 남녀노소가 다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당의 봉사요원으로서 양대산맥 중 하나인 청년회의 한 회원은 꽤 괜찮은 실력을 보유하고도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주일학교 학생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또 다른 한 축인 양업회는 그동안 열심히 축구로써 체력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건회의 화끈한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더군요. 현란한 발놀림과는 달리 손놀림은

뽀니뽀니 해도 운동경기의 백미는 결승전입니다. 길었던 여정 끝에 지난 주 부활대축일 미사 후에 구역 및 단체별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구역 대항전에서는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불리우던 토런스 서구역과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리던 토런스 북구역이, 단체전에서는 젊음과 패



제1회 부활맞이 친선 탁구대회 두달반 열전 끝에 폐막
구역/단체 총12개팀 출전...토런스 서, 대건/자모회 우승

기의 대건/자모회와 완숙함과 노련미를 겸비한 양업/성모회가 우승을 다투었습니다. 두 테이블이 마주하여 동시에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역시 결승전 답더군요. 여간해서는 보기 힘든 난타전과 레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강력한 스매싱을 가볍게 받아넘기기도 하고 더 강한 백드라이브를 걸기도 합니다. 흡사 무엇

이든 뚫겠다는 창과 무엇이든 막아 내겠다는 방패의 싸움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공교롭게도 동시에 양쪽 테이블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관중들의 시선이, 선수들의 호흡이, 균형을 끝까지 지키려는 심판의 날카로운 눈매가 서버의 손바닥 위 조그만 공에 쏠린 것입니다. 정작 이런 긴장을 깨뜨렸던 건 관중도 선수도 심판은 더더욱 아닌 그저 경기와는 상관없는 한 아웃사이드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여기 소주와 막걸리 있습니다~~~족발도 있어요~~~.” 남녀노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친근함을 자랑하는 정 모 형제님이죠. 음식세팅에 정신이 없어 관심을 둘 수 없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경기에 함께 할 수 없음이 억울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타이밍 하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바람에 모두가 긴장을 풀고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한 1회 대회는 결국 토런스 서반과 대건회가 각각 우승을 거두며 막을 내렸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한팀 한팀 탈락하면서 그만큼 관중의 수도 적어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했었다면 더 크게 축하해 주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랄려면 한도 끝도 없죠?

어쨌거나 이렇게 뜨겁게 달구진 우리를 신부님께선 또 어떻게 식히실지 사뭇 궁금해 집니다. 오히려 기쁨을 부울라나요?

글·사진 신철규 미카엘 기자 / 백삼위 주보편집위원회